

# 도,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 운영

### 임대인의 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 지원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광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 시행됐다.

이에 전북도는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에 나서는 등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북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 를 받아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최우선배급 만큼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그리고 최우선배급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을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도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

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희망법률상담실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건은 없으나 전주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지난 3일 도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3회 그린웨이 환경축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 김재훈 기자)

## 지구를 위한 행동의 시작

### 그린웨이 환경축제 성료... 탄소중립 정책 노력 다짐

전북도는 지난 3일 도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3회 그린웨이 환경축제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위해 지구력을 모으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9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했다. 또 1만여명의 도민이 축제를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및 실천문화 확산이라는 기획 취지에 따라 홍보 현수막과 전단지 제작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운영도 일회용품 없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축제에 참여하는 도민과 프로그램 운영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사장 쓰레기는 50L 1봉지만 배출돼 높아진 환경의식과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막식에서는 유치원생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별, 성별, 직업별, 세대별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언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도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전북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탄소중립에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껏 뚝다"고 말했다.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업대표로 참여한 전북도시가스 김홍식 대표는 선언식에서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우리 기업도 탄소중립 역량을 높여 나가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는 '토요 채식', '지구력 해커톤', '또포시장', '신묘한 자판기' 등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축제 전부터 당일까지 진행한 '신묘한 자판기'는 고래, 알바트로스, 지구자판기용 페박스 등 만들어 쓰레기가 해양생태계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재미있게 해석했다. 이나비바 장터인 '또포시장'에는 100팀이 참여해 자원과 나눔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또 51개가 운영된 '지구력 체험부스'는 다양한 환경체험을 제공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대의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전북도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번 축제가 당일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활 속에 탄소중립 실천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임상규 행정부지사, 청년들과 정책 발굴 위해 '머리 맞대'

### 청년 예술기업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성공 사례 경험·청년 체감정책 논의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일 청년 예술기업 '향유갤러리'에서 지역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청년 체감 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도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는 전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

회, 청년협의회 청년정책포럼단에서 활동하는 청년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청년 성공사례와 사례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공'하는 청년정책을 논의했다.

먼저 지역에서 성공한 청년 기업으로 '썬향유(대표 김수현)'를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 장소이기도 한 썬향유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 문화기업이다.

특히 지난해 전북도 공모사업인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선정돼 신진 청년 예술가에게는 작품 전시 기회를, 도민에게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3배 매출액 상승을 일궜다.

수현 대표는 "청년생생아이디어 사업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여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북도와 청년이 '함께 성공'하는 청년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 정책 과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 행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일 청년 예술기업 '향유갤러리'에서 지역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청년 체감 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도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댔다. (사진: 김재훈 기자)

## '전북 청년 도약 프로젝트' 6개 단체 선정

### 단체 당 2년간 최대 6600만원 지원·청년단체 성장과 발달을 기대

전북도는 2023년 청년 도약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주시 익산시 등 5개 시군에 6개 청년단체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화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도약프로젝트'는 도내 청년단체 등이 단체 특성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지역 자원을 연계한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우수 아이디어를 개발·실현해 청년단체(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이디어 개발비, 컨설팅비(사업 자문), 홍보비 등을 2년간(2023~2024년)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당 최대 6,600만원이 지원되며, 선발된 청년단체는 1차년도 사업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 단체는 △전주시 '모던국악프로젝트' △익산시 '문화예술공동체 미담보담협동조합' △김제시 '농촌을 보고 배우다' △김제시 '에브리 잉글리쉬' △장수군 '장수러닝클럽' △고창군 '농업회사법인 (유)브라더팜'이다.

전주시 '모던국악프로젝트'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 등 해설이 있는 관소리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소리 저변확대와 도내 거주 외국인의 문화향유에 기여할 계획이다.

익산시 '문화예술공동체 미담보담협동조합'은 예술 교육 콘텐츠(예술기트), 교육기트 및 시제품 제작으로 어린이 창의력 향상 지원과 청년예술인 경제 활동을 활성화한다.

김제시 '농촌을 보고 배우다'는 지역 내 청년농장 및 농산물 자원을 연계, 퀘스트형 농촌 체험관광 RPG(Role Playing Game)프로그램을 개발해 신개념 농촌체험 관광 운영으로 체험과 교육을 통한 6차 산업을 추진해왔다.

김제시 '에브리 잉글리쉬'는 지역자원과 체험 영어를 접목해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영어 교육형 관광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영어 콘텐츠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장수군 '장수러닝클럽'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트레일레이스 코스개발과 국제 트레일 러닝대회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화와 연계한 지역특산물 홍보·판매로 지역 활력을 도모한다.

고창군 '농업회사법인 (유)브라더팜'은 지역자원인 풍천장어의 버려지는 자원(머리, 내장 뼈)으로 프리미엄 반려동물 간식·사료를 개발해 지역 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선정된 6개 청년단체는 오는 8월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사업점검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병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도약프로젝트는 청년단체들이 지역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아이디어 실현에 도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힘찬 도약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품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영어 콘텐츠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장수군 '장수러닝클럽'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트레일레이스 코스개발과 국제 트레일 러닝대회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화와 연계한 지역특산물 홍보·판매로 지역 활력을 도모한다.

고창군 '농업회사법인 (유)브라더팜'은 지역자원인 풍천장어의 버려지는 자원(머리, 내장 뼈)으로 프리미엄 반려동물 간식·사료를 개발해 지역 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선정된 6개 청년단체는 오는 8월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사업점검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병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도약프로젝트는 청년단체들이 지역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아이디어 실현에 도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힘찬 도약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320명 모집

도전플러스 이수시 현금 최대 300만원 지급

전북도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자신감 회복 및 구직활동을 위해 '전북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3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도전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18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도전프로그램(1개월, 이수시 현금 50만원 지급)과 도전플러스 프로그램(5개월×50만원으로 250만원, 이수시 인센티브 50만원, 최대 현금 300만원 지급)으로 나뉜다.

모집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 만능표 점수가 20점 이상인 만 18~34세 이하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취업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다.

이 외에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폐업한 자영업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취업문제로 졸업유예, 장기휴학중인 대학생, 경력단절 주부 등 18~34세 청년도 지역특화형으로 참여 가능하다.

본 사업은 (주)휴먼케어앤씨(수행기관)가 추진 중인데 인공지능(AI)면접,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입사지원서, 퍼스널 컬러 찾기 등 실질적으로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 또는 유선 신청 전북청년도전지원사업단(063)272-4920), 블로그(https://bigraver.com/humanjrc)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남원 지리산 자락에 대규모 전원마을 조성

### 2026년까지 220억 투입

### 분양·임대주택 78호 공급

남원 지리산 자락에 복지·문화 기반 시설을 갖춘 전원마을이 조성된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에서 공동주관한 2023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남원 지리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모델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 및 청년에게 타운하우스 등 주거지를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기반시설을 조성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축산물 수출 확대 행보 박차

### 홍콩 바이어 도내 돼지도축장 방문·돼지고기 수출 협의

전북도는 한우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홍콩 현지 관측 행사를 추진한데 이어 해외 바이어를 전북으로 초청하는 등 축산물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일 비선호 부위인 돼지고기 등심 수출을 위해 홍콩 바이어(브라이트존스)를 초청, 도내 돼지도축장 및 가공장(농협목우촌, 도드람 김제 FMC)을 방문하고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홍콩 바이어들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

며 돼지고기 수출 가능성과 현지시장에서 유통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바이어 초청을 계기로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인 안·등심, 뒷다리 수출이 확대될 경우 국내 재고 감소에 따른 돼지 가격 안정 및 육가공업체의 경영난 해소 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 한우고기(총체보리한우)는 홍콩현지관측행사를 통해 45억 원(3년간) 규모의 수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취약계층 실내공기 관리 실시

### 취약계층 이용시설 60개소대상,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컨설팅

전북도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소규모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관 등은 단위 면적당 밀집도가 높고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는 우려가 있었다. 도는 이러한 우려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는 올해 사업대상으로 총 60개소(소규모 어린이집 40곳, 노인요양시설 5곳, 지역아동센터 13곳, 노인복지관 2곳)를 선정했다. 그간 사업 미진정 시설과 임대시설을 우선으로 추진연도가 오

래된 순서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사업내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상의 유지기준 6개항목에 대한 무료측정과 컨설팅이다.

측정결과와 각 시설에 전담해 자발적 실내공기 관리를 유도하며,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은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을 제공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